

아름다운 가을날에

유 양 속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교수 · 분회 교육분과장



협 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이 깊었습니다. 눈부시게 푸르고 맑은 하늘과 아름다운 빛깔로 물든 나무들이 어우러져 감탄을 자아내고, 옷깃을

여미게는 하나 상쾌한 공기와 따사로운 햇살이 있어 참으로 은혜로운 계절입니다.

로사리오의 성월을 보내면서, 거룩하신 성자의 어머니이시며,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되어 주시는 성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 지를 헤아리며, 돌같이 차고 무딘 마음을 돌이켜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일터에서, 가정에서 더 많은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연구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 많이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자 고심하고, 더 많은 관계와 더 많은 소유를 위하여 번민하면서 때로는 열심히 살고 있다고 위안도 하면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면의 세계를 향한 사색과 통찰의 시간에 인식하였기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버림받아 늘 고독하였고 슬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살다가 고달프고 지칠 때면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무릎을 꿇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염치없음과 주님의 뜻에 따르다 하면서도 행여 너무 무거운 짐을 지게 되지는 않을까 하여 저울질하는 약한 믿음에 하느님의 자비를 청합니다.

이제 위령성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가난과 역경 속에서 낳아 기르시고 십자가에서 떠나 보내시기까지 온 영혼으로 고통을 겪으신 성모님을

생각하면서, 예와의 후손으로서 고단했던 이 생을 마무리 하고 주님의 나라로 건너가야 할 말기환자와 그 가족, 그들을 돌보시는 회원 여러분을 떠올려 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이들은 총체적인 고통을 겪으며 어떤 이는 평화와 희망 속에서, 또 어떤 이는 체념과 절망 속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고통을 안고 홀로 두려움 속에서 여행길을 떠나는 말기 환자에게 우리가 작은 보탬이라도 되기 위하여 할 수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겻세마니 동산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피땀을 흘리셨던 예수님께서 깨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청하셨음 같이, 또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주님의 종으로서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었던 성모님과 같이 말기환자와 그 가족들이 고통 받는 그곳에 함께 머물러 주는 것, 나누어 받을 수 없는 고통을 주님의 자비에 의탁하면서 함께 울어 주는 것, 너 자신을 위해 울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속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의 처지를 살피고 다듬는 것, 돌아가실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고 눈물로 받을 다향아주던 여인들과 넘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던 시몬처럼 죽음의 준비과정에서 작은 것이라도 정성을 다하는 것이 호스피스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호스피스를 삶을 포기하는 장소, 죽음에 임박하여 떠날 준비를 하는 시설로서 인식하여 호스피스 돌봄을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떠나시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도적, 법적, 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돌보시는 회원 여러분의 보이는, 보이지 않는 수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호스피스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 오신 간호사들의 노고 덕분에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상적인 호스피스 철학위에서 내실 있는 교육과정과 실습기관, 준비된 교육자를 갖추고 있는 간호대학이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합니다.

한편, 우리 협회에서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이 각 기관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

도록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교육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교육 지침서를 발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세상을 떠난 영혼들에게 평안한 휴식이 있기를,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위로 있기를, 도둑처럼 찾아올 우리들의 죽음의 시간에 성모님의 이끄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찾아올 새로운 봄을 기다리며 미련 없이 옷을 벗는 나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남은 삶 동안 더불어 사는 이웃 안에서 써 내려간 이력서를 들고 본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

잃어버린 것에 애달파 하지 아니하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해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아니하며
나의 나 됨을 바라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살아 있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아니하며
부유해도 오만하지 아니하며
모두가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아니하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통해 하지 아니하며

소중한 것을 상실해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오늘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격려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누더기를 걸쳐도 이오게네스처럼 당당하며
가진 것 다 잃고도 욘처럼 하느님을 찬양하며
천하를 얻고도 다윗처럼 엎드려 회개하는
넉넉히 사랑 나누며
오늘 하루 살게 하소서